

목포교육청, '2023. 지구를 구하는 9가지 실천행동 홍보' 실시

환경의 날 주간과 연계,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목포 용호초 및 목포시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환경의 날 주간과 연계하여 목포용호초등학교 및 목포시 유관기관과 함께 '2023. 지구를 구하는 9가지 실천행동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지구를 구하는 9가지 실천행동 홍보'는 지난 6월 1일에 실시한 '2023.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이어서 목포교육지원청이 목포용호초 교직원 및 학생, 목포시모범운전자회, 목포시녹색어머니회, 목포경찰서, 목포지역 구도의원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빈 교실 불 끄고 적정온도 유지 △물 받아 쓰고 아껴서 쓰기 △월 1회 메일함 비우기 △다회용컵 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안 쓰는 물건 나눔 하기△주 1회 채식식단 운영 △주 1회 음식 남기지 않는 날 운영 △ 1인 1반려식물 키우기 홍보로 진행했다.

목포용호초등학교는 빈 교실 불 끄고 적정온도 유지하기'를 목포교육지원청은 '다회용컵 사용하기'를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제시된 9가지 행동은 작은 행동변화이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혔다.

목포용호초등학교 이○○ 학생은 "학교 친구들과 모둠으로 페 박스 및 재활용품을 활용해 지구를 구하는 9가지 실천행동 홍보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나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하는



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목포교육지원청은 오는 6월15일(목)에 목포 관내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목포시

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 남기기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보성 미력초, 독서인문체험학습 실시



보성 미력초등학교 전교생은 지난 7일 광주 유스퀘어에서 독서인문체험학습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교 특색 교육인 독서인문교육의 일환으로 종합 예술인 영화 관람과 서점 체험을 통해 인문 감수성 함양과 독서의 생활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체험학습에 참석하기 전, 학교에서 학생들은 관람할 영화에서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점과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생각하며 체험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체험 날 오전에는 영화 관람(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을 했으며 오후에는 서점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또 자신이 읽을 책을 고르는 모습에서는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4학년 조○○학생은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를 봐서 좋았고, 내가 고른 책을 볼 생각을 하니 기대돼요"라고 얘기했다.

보성=김덕순기자

해남 북일초, '환경의 날' 기념 북일&북평 작은 학교 공동 캠페인 실시

쓰레기 줍고 캠페인 전개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실천운동



해남군 북일초등학교·북평초등학교 학생들은 최근 7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해남 북일면 내동리 및 북평면 남창리 일대에서 지구환경지킴이 줍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줍깅'은 '줍다'와 '워깅'의 합성어로, 일정 구간을 걸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줍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실천운동이다. 두 학교의 전교생은 각자 손에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본격적인 '줍깅'을 실천했다. 마을 일대를 두 시간 가량 돌며 길가에 버려져 있는 담배꽂초 등의 쓰레기를 줍고 박스 피켓을 활용해 환경 보호 의지를 다지는 홍보활동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영광 성지송학중, 즐거운 가족캠프 진행

영광 성지송학중학교는 최근 1박 2일로 전교생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학생회가 주최되어 진행한 명랑운동회를 시작으로 가족 율링 레크레이션, 우리 가족 텐트치기, 장기자랑, 소원등 켜기, 우리가 준비한 먹거리 장터 등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최하늘 학생회장은 "이번 1박 2일 캠프를 통해 가족과 함께 야외 텐트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행사 준비로 바쁘고 힘들었지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피로가 싹 날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전남도-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설립 공동협력 선언

최근 선언문 통해 의대 유치로 의료여건 개선-지역소멸 대응 강조

전라남도는 최근 도청 귀빈실에서 국립 목포대·순천대와 함께 도민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공동 협력기로 선언했다.

이날 공동 협력 선언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이병문 순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동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는 선언문을 통해 ▲전남도민의 의료여건 개선과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 타개에 앞장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양 대학 간 역량집중 및 상호협력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 반드시 포함토록 촉구 등 내용을 담아 공동협력 의지를 담아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 협력 선언'은 정부와 의료계에 보내 의대 설립의 절실함을 한목소리로 전달하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지역 양대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동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